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11월 17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섀도우로 인한 유동성 정체 상황과 AI 수익화 등의 이슈에서도 미국 기업 실적모멘텀은 IT 섹터 기반으로 강한 상향.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불확실성 부각 및 미국 섀도우로 인한 TGA 잔고 창고 봉쇄 등은 일시적으로 미국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논란 야기. 다만, 미국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투자은행, 금속광물, 자동차 등 위주로 내년 실적가이던스가 큰 폭으로 상향되는 상황반도체가 이끄는 글로벌 실적 흐름 지속. 글로벌 반도체 업종 PER 25.3배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 3년래 최대치인 31.7배 대비 괴리 충분. 올해 실적을 이끈 글로벌 업종은 반도체, 투자은행, 금속광물, 항공, 바이오 등

엔비디아: AI 가속 컴퓨팅 지배력 및 B100 출하 기대, B100 등 차세대 AI 칩의 강력한 수요 지속.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 소프트웨어/플랫폼 사업 성장 가속화

어드반테스트: AI 반도체 테스트 수요 폭발적 증가, HBM 등 고성능 메모리 및 AI 칩의 복잡성 증가로 테스트 장비 시장 독점적 수혜

GE버노바: 전력 수요 급증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가스 터빈 및 발전 설비 수요 폭발. 해상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분야 성장 기대

지멘스에너지: 글로벌 전력망(Grid) 투자 대규모 확대,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 세계적인 송배전 장비 수요 증가 수혜

우버: 핵심 사업부의 구조적 이익 개선 가속화, 라이드셰어링 및 배달 부문 모두의 강력한 성장과 수익성 개선. 광고 사업 확장 등 신규 수익원 기여도 확대

도어대시: 미국 배달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광고 수익 성장 미국 레스토랑 파트너십 확대 및 고객 충성도 강화. 플랫폼 내 광고 및 비(非)레스토랑 사업(Grocery 등) 확장

암페놀: 데이터 센터 및 전기차(EV) 연결 솔루션 수요,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향 고속 커넥터 수요 증가. 산업용 및 전기차(EV) 전장 부품의 견고한 성장

파커하니핀: 산업 자동화 및 항공우주 수요 지속, 산업 자동화 시장의 강력한 수요와 항공우주 부문의 구조적인 회복 및 증산 수혜. 비용 효율화 노력 가시화

버텍스파마슈티컬스: 비낭성 섬유증 치료제 파이프라인 기대 기존 낭성 섬유증 치료제 독점적 지위 유지. 비낭성 섬유증 및 통증 치료제 등 신규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 기대감

시스코: AI 중심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수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의 AI 최적화 노력. 소프트웨어 구독 기반 매출 비중 확대. 보안 및 협업 솔루션 수요 견조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장비, 자본 시장, 생명공학(바이오), 전기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 확산, 워크플로우 섹터의 고성장 수혜, 클라우드/데이터/보안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지속

반도체 및 장비: AI 관련 D램 및 HBM 수요 증가에 따른 장비 투자 확대, 첨단 로직 및 메모리 수요 증가, GAA 등 신규 아키텍처 도입, 중국의 장비 구매 지속

자본 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주 중심 장기 강세장 지속 전망 (미국 증시 기준), 이에 따른 금융 활동 증가 기대

생명공학(바이오): 이종 산업 간 통합을 통한 경영 전문화 및 투자 규모 확대, 자금력을 확보한 바이오텍들의 대규모 투자 시작

전기 유틸리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발적 증가 및 전력망과 인프라 투자 확대

하향 업종은 호텔/레스토랑/레저, 항공, 해운, 화학, 부동산 관리, 종이 및 제지

호텔/레스토랑/레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식자재 및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의 지속적 증가, 고금리 및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및 지출 감소

항공: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 달러 강세 지속 시 외화 부채 상환 부담 및 유류비 결제 부담 증가, 항공기 구매 및 정비 비용 상승

해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우려, 운임 지수(컨테이너, 벌크)의 변동성 확대 및 하락 가능성, 신규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심화

화학: 중국 등 신흥국들의 자급률 확대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원재료(원유/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에 따른 마진 압박, 전방 산업(건설, 자동차 등)의 수요 둔화

부동산 관리: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 및 거래 둔화, 상업용 부동산 공실을 상승 및 자산 가치 하락 위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종이 및 제지: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인쇄용지 시장의 구조적 감소 추세 지속,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의 높은 변동성 및 투입 비용 증가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보잉, 에어비엔비, 우버, 스포티파이, 지멘스에너지, BP, 어드반테스트, 소니, 암페놀, 뉴몬트, 도어대시, 시스코, 누홀딩스, 버텍스팜, 엔비디아, GE버노바, 브룩필드, 윌트디즈니, 텐센트, 몬스터베버리지, KKR, 파커파니핀 등

하향 주요 종목은 소프트뱅크, 코인베이스, 프롤로지스, 노보노디스크, 버크셔해서웨이, 윌리엄스코스, 트랜스다임, 컴캐스트, 엔브릿지, 노바티스, 아람코, 에머슨일렉트릭, 화이자, 토탈에너지스, 브리스톨마이어스쿱, 지멘스, 홈디포 등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4Q25F OP는 78.3조원 (1W +0.5%, 1M +3.4%, YoY +63.7%), 이익 반등 지속. **2026E OP**는 사상 최초로 409조원 돌파(1W +0.8%, 1M +10.4%), 실적 시즌 종료에도 '26년 OP 전망치 꾸준히 상향 중. '26F OP **상향 업종**은 반도체, 지주회사, 조선, 전자재, 증권, 음식료, 자동차부품, 유틸리티, 전기장비. **하향 업종**은 2차전지, 항공, 화학, 건설, 화장품, 비철금속, 기계, 방산, 디스플레이, 철강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26F OP 기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SK스퀘어, 한국전력, HD현대일렉트릭 상향.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두산에너지빌리티,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하향

‘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대덕전자, 엘앤에프, 효성, 로보티즈, 카카오페이, 한올바이오파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펠어비스, SK스퀘어, 효성중공업, HD현대미포SK이노베이션, S-Oil, DB하이텍, 원익IPS, 테크윙, 한국금융지주, 더존비즈온, 삼성중공업, 한온시스템, 키움증권, HD현대마린엔진, 두산, 고려아연, 에이피알, 엔씨소프트, HD현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은 중형주 및 가치주 상대적으로 매도세 제한적.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1.9조원, 코스닥 -1,43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철강, 자동차와부품, 유통, 필수소비재, 제약바이오.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상호미디어, 유틸리티, 전자재, 기계

연기금은 중소형주 및 가치/배당주 선별적 매수세.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490억원, 코스닥 -48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철강, 유통,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순매도 상위 업종**은 디스플레이, 기술하드웨어, 전기장비, 항공, 해운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11.17일(월)

미국 뉴욕 ES 제조업지수, 연준 멤버 연설 / KT&G, LS

18일(화)

미국 산업생산, 연준 부의장 연설 / 두산로보틱스, 홈디포, 핀뒤워

19일(수)

미국 원유재고, FOMC 회의록 / 엔비디아, 팔로알토, 로우스, 타깃, 디어

20일(목)

미국 연준 고용률, 기존주택판매 / 월마트, 인튜이트

21일(금)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 -

Quant Comment

금주 미국 금리에 초점 가능성, 수요일 FOMC 회의록과 각종 연설, 목요일 연준 고용률, 금요일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 등, 고용 둔화의 금리 인하 재료와 인플레이션 자극의 금리 동결 재료에 금융시장 민감하게 반응 가능성(금주 말, 인플레이션 더 큰 영향)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영업이익률 등) 서프라이즈 여부에 따른 반도체 저점 반등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등 전반적 실적모멘텀에는 이상무, 오히려 밸류에이션 하락(AI 버블에 대한 논란 자체가 투자자들이 자제하는 액션으로 과거와 같은 AI 버블 가능성 매우 낮을 것)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알파 전략은 디펜시브 측면에서 중소형 고배당 및 가치주, 제약바이오, 금융 등에 기회가 있을 전망